

廢棄物문제, 汎國民運動으로 해결해야 한다

조일성 / 본회의 홍보부장

자연은 우리 인간의 위대한 어머니이며, 모든 생명의 보금자리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소중히 해야하며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다.

오늘을 사는 세대뿐만 아니라 이를 물려받게 될 우리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환경보전이다.

春夏秋冬, 우리의 산은 철틈도 없이 신음하고 있다. 속으로 앓고 있다. 그리고 지금 놀라운 속도로 오염돼가고 있는 것은 산만은 아니다.

심산유곡에서부터 시내물에 이르기까지 더럽혀졌다. 도시를 벗어나도 아름다운 자연하곡의 만남은 좀처럼 힘들어졌다. 설악산등 이름난 명산이나 국립공원도 쓰레기에 묻혀있다시피하다.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전국 각처에 퍼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갖가지 경종이 울려오고 있지만 그것을 저지할 적절한 대책은 아직 이렇다 할만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환경보전을 위한 일반인의 인식과 홍보계도이다.

그러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펼치기에는 갖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첩첩산중으로 널려있다.

앞으로 도로망이 더 확장되고 교통수단이 대중화함에 따라 「민족 대이동」을 방불케 하는 행락인파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의 산천이 쓰레기로 더럽혀지는 일은 더욱더 심해질

유원지마다 넘쳐나는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멀지않아 산이 멎고 물이 썩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사실이다.



■ 산의 정상에 쓰레기가 쌓여 수거에 애를 먹고 있다.

것이다. 유원지마다 넘쳐나는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멀지않아 산이 멎고 물이 썩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산천을 쓰레기 공해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범국민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협회에서는 홍보계도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줍

기운동부터 시작해 소음진동방지를 위한 캠페인까지 다양하고 효율적인 운동을 추진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직도 모자라고 또 모자라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단지 욕심의 단계를 넘어 온 국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환경보전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쓰레기 공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과 함께 쓰레기공해의 심각성을 깨우치기 위한 계도활동이 좀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전개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요즘 우리사회에 넘쳐나는 종이컵, 비닐봉지등 1회용 상품의 사용에도 적절한 절제의 슬기가 따라야 하겠다.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때문에 무한정의 자원낭비를 조장하고 있는 1회용 상품들이 바로 쓰레기공해를 불러오는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같이 느끼는 일이다.

기업체들이 솔선해서 쓰레기문제 해결에 앞장서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쓰레기에 파묻혀 질식되어가는 국토의 숨통을 트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과 대책이 강구되어 온 국민이 함께하는 환경보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토를 보전하고 가꾸는 일은 우리 세대가 젊어진 또 하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이 오늘도 우리를 현장에서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있다. *